



카이로스 논술 비트겐슈타인, 『논리·철학논고』 고전읽기

글쓴이 : 들뢰즈(sanggels@empal.com)

작성일 : 2007. 01. 20.

질문 1. 『논리철학 논고』가 씨름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원문 읽기	<p>“이 책은 철학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 내가 믿기로는 — 이러한 문제들의 문제 제기가 우리의 언어 논리(言語論理)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이 책의 전체적인 뜻은 대략 다음의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 좌우간 말해질 수 있는 것은 명료하게 말해질 수 있다 ; 그리고 이야기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는 침묵해야 한다.</p> <p>이 책은 그러므로 생각에 한계를 그으려 한다. 또는 차라리, 생각이 아니라 사고의 표현에 한계를 그으려 한다.”(33쪽)</p>
답변	<p>비트겐슈타인은 지금까지의 철학이 지닌 많은 문제가 언어의 논리에 대한 오인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사고할 수 있는 것과 사고할 수 없는 것 사이에 한계/경계선을 긋는 것을 과제로 삼고, 세계를 다시 응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p>

세계, 사실, 사물(대상), 사태, 논리 공간의 관계성에 대해	
질문 2-1. 세계란 무엇인가? 사실과 사물 개념에 주목해서 대답하시오(1~1.21)	
원문 읽기	<p>“1. 세계는 일어나는 모든 것이다.</p> <p>1.1 세계는 사실들의 총체이지 사물들의 총체가 아니다.</p> <p>1.13 논리적 공간 속의 사실들이 세계이다.</p> <p>1.2 세계는 사실들로 나뉜다.”(35쪽)</p>
답변	<p>비트겐슈타인은 세계란 세계의 바로 그 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즉 사실의 총체라고 정의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나는 전철을 타고 학교에 다닌다”고 하는 사실이 있다. 이 사실은 “나”, “전철”, “학교”라는 사물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물을 모아보면 “나전철학교”가 되며, 다른 사물과의 관련성을 갖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단순한 사물의 집합은 사실을 이루지 않는다. 오히려 사실은 사실로서만 의미를 구성한다는 것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세계란 사실의 총체라는 것이 가능하다.</p>

<p>세계, 사실, 사물(대상), 사태, 논리 공간의 관계성에 대해 질문 2-2 세계와 논리 공간의 관계성을 사태라는 개념에 주목하여 대답해 보자.(2~2.063)</p>	
<p>원문 읽기</p>	<p>“2. 일어나는 것, 즉 사실은 사태들의 존립이다. 2.01 사태는 대상들(존재물들, 사물들)의 결합이다. 2.011 사물에 본질적인 것은, 어떤 한 사태의 구성 성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124 모든 대상들이 주어진다. 그와 더불어 모든 가능한 사태들도 또한 주어진다. 2.013 모든 사물 각각은 말하자면 가능한 사태들의 공간 속에 있다. <중략> 2.014 대상들은 모든 상황들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2.0231 세계의 실체는 단지 어떤 하나의 형식을 확정할 수 있을 뿐이고, 실질적 속성들을 확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후자는 명제들에 의해서만 비로소 묘사되기 때문. 즉 대상들의 배열에 의해서만 비로소 형성되기 때문이다. 2.027 확고한 것과 존속하는 것과 대상은 하나이다. 2.0272 대상들의 배열이 사태를 형성한다. 2.03 사태 속에서 대상들은 사슬의 고리들처럼 서로 걸려 있다. 2.04 존립하는 사태들의 총체가 세계이다. 2.06 사태들의 존립과 비존립이 현실이다.”(35~41쪽)</p>
<p>답변</p>	<p>비트겐슈타인은 1에서 세계를 사실의 총체로서 규정했다. 그러나 만일 여기에서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은 단순한 사실로서 존재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오토바이를 탄 김씨는 대학생이다”라는 사실과 “전철을 탄 최씨는 사회인이다”라는 사실이 존재했을 경우, 김씨는 김씨로서, 최씨는 최씨로서 각각 단독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 김씨는 오토바이를 타는 한편 대학생이라는 사실이 아니라면 존재할 수 없고, 최씨는 전철을 탄 한편 사회인이 아니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p> <p>여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은 현실세계로부터 가능성의 공간으로 걸어간다. 즉 사실을 구성하는 ‘사물(대상)’을 사실로부터 끄집어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자면 ‘김씨’, ‘최씨’, ‘오토바이’, ‘전철’, ‘대학생’, ‘사회인’ 등이 그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러한 대상을 끄집어내어 다양한 가능한 사실, 즉 사태를 구성한다. 예를 들면 “전철을 탄 김씨는 사회인이다”라든가 “오토바이를 탄 최씨는 대학생이다”라는 것이다. 어쩌면 있을 수 있는 사실을 사태라고 부르지만, 이것들은 가능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한 사실의 총체가 바로 그가 말하는 논리공간인 것이다. 따라서 논리공간은 모든 가능성을 포함하여 세계보다도 큰 공간이 되는 것이다.</p>

<p>사고에 대해서(2.1~3.5) 질문 3-1.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그림 이론’을 정리해 보자.(2.1~2.225)</p>	
<p>원문 읽기</p>	<p>“2.1 우리는 우리에게 사실들의 그림들을 그린대우리는 사실들의 그림들을 만들</p>

	<p>어낸다.</p> <p>2.11 그림은 논리적 공간 속의 상황, 즉 사태들의 존립과 비존립을 표상한다.</p> <p>2.12 그림은 현실의 모델이다.</p> <p>2.15 그림의 요소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서로 관계맺고 있다는 점은 존재물들이 서로 그렇게 관계맺고 있다는 점을 표상한다.</p> <p>그림 요소들의 이러한 연관이 그림의 구조라고 불리며, 그 구조의 가능성은 그림의 모사 형식이라고 불린다.</p> <p>2.1514 모사 관계는 그림의 요소들과 존재물들과의 짝짓기들로 이루어진다.</p> <p>2.17 그림이 현실을 그림의 방식으로 — 올바르게 또는 그르게 — 모사할 수 있기 위해 현실과 공통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 그림의 모사 형식이다.</p> <p>2.18 모든 그림 각각이, 그 형식이 어떠한지, 아무튼 현실을 — 올바르게 또는 그르게 — 모사할 수 있기 위해 현실과 공통으로 가져야 하는 것은 논리적 형식, 즉 현실의 형식이다.</p> <p>2.2 그림은 모사된 것과 모사의 논리적 형식을 공유한다.</p> <p>2.223 그림이 참인지 거짓인지 인식하려면, 우리는 그것을 현실과 비교해야 한다.</p> <p>2.224 오로지 그림만으로는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인식할 수 없다.</p> <p>2.225 선천적으로 참인 그림은 존재하지 않는다.”(41~45쪽)</p>
<p>답변</p>	<p>그림이란 현실의 세계, 즉 논리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태의 성립, 불성립을 우리들이 모사하는 것이며, 그것들을 대리하는 것이다. 그림을 구성하는 요소는 각각이 논리 공간에서의 사태의 대상과 대응한다. 그림은 성립, 불성립 중 어떤 것이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경우와 그른 경우(참이거나 거짓이거나)가 있지만, 그러나 현실 세계의 형식, 즉 논리적 형식은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쨌든 그림이 현실의 모사인 이상, 선천적으로 참인 그림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현실과 비교하지 않으면 안 된다.</p> <p>예를 들면 “책상 위에 사과가 한 개 있다”고 하는 사태는 논리적이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현실과 비교하지 않으면 모른다. “책상 속에 사과가 한 개 있다”고 했을 때, 물리적 법칙에는 들어맞지 않지만 논리적으로는 그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러나 “책상 속에 자동차가 들어 있다.”라는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상황을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다면, 이것을 말할 수도 없다.</p>

<p>사고에 대해서(2.1~3.5)</p>	
<p>질문 3-2. 위의 1)을 이용하여 사고란 무엇인지 대답해 보자(3~3.5)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명제이다.</p>	
<p>원문 읽기</p>	<p>“3. 사실들의 논리적 그림이 사고이다.</p> <p>3.001 ‘어떤 한 사태가 생각될 수 있다’가 뜻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태에 관해</p>

	<p>어떤 하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다.</p> <p>3.03 우리는 비논리적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비논리적으로 생각해야 할 터이기 때문이다.</p> <p>3.12 우리가 사고를 표현하는 데 쓰는 기호를 나는 명제기호라고 부른다. 그리고 명제란 세계와 투영적 관계에 있는 명제기호이다.</p> <p>3.142 오직 사실들만이 뜻을 표현할 수 있고, 이름들의 집합은 그렇게 할 수 없다.</p> <p>3.1432 명제 기호가 하나의 사실이라는 점은 글씨 또는 인쇄의 통상적인 표현 형식에 의해 은폐되어 있다.</p> <p>왜냐하면 예컨대 인쇄된 명제에서 명제기호는 낱말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p> <p>3.2 명제 속에서 사고는 명제기호의 요소들이 사고의 대상들과 대응하도록 그렇게 표현될 수 있다.</p> <p>3.262 기호들 속에서 표현되지 않는 것을 기호의 적용은 보여준다. 기호들이 삼키고 있는 것을 기호의 사용은 언표한다.</p> <p>3.3 오직 명제만이 뜻을 가진다 ; 오직 명제연관 속에서만 이름은 의미를 가진다.</p> <p>3.312 그러므로 표현은 그것이 특징짓는 명제들의 일반 형식을 통해 묘사된다.</p> <p>3.322 우리가 두 대상을 동일한 기호를 가지고, 그러나 두 개의 서로 다른 지시 방식으로 가리킨다는 점은 그 두 대상의 공통적 징표를 결코 지적해 줄 수 없다. 왜냐하면 기호는 실로 자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 가리킴에 있어서 공통성을 지닌 두 개의 서로 다른 기호를 골라낼 수 있을 것이다.</p> <p>3.327 기호는 기호의 논리적·구문론적 사용과 더불어서만 비로소 어떤 하나의 논리적 형식을 확정한다.</p> <p>3.343 정의들은 한 언어로부터 다른 한 언어로의 번역규칙들이다. 모든 올바른 기호 언어 각각은 그러한 규칙들에 따라서 다른 모든 올바른 기호 언어 각각으로 번역될 수 있어야 한다 ; 이 점이 그것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니는 것이다.</p> <p>3.4 명제는 논리적 공간 속의 어떤 한 장소를 확정한다. 이 논리적 장소의 존재는 구성 성분들만의 존재에 의해서, 즉 뜻을 지닌 명제의 존재에 의해서 보증된다.</p> <p>3.42 비록 명제는 논리적 공간 속의 한 장소만을 확정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한 장소에 의해서 이미 전체 논리적 공간이 주어져 있어야 한다.”(45~59쪽)</p>
답변	<p>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즉 사고한다는 것이다. 사고될 수 있는 것이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며 논리적인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비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비논리적인 것은 그림으로 그려지지 못하고 언어로 나타내 보일 수 없기 때문이다. 사고는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현 기호, 예를 들면 음성이나 문자를 이용해 표현된다. 이 기호를 비트겐슈타인은 명제기호라고 부르며, 이것에 의해서 표현되는 사고가 명제이다.</p> <p>명제란 무엇인가? 명제 기호의 요소는 그림의 부분에서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고의 대상과 대응한다. 이 명제가 포함한 요소가 이름(단순 기호)으로 불리며, 명제와의 관련에서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각각의 명제의 의의를 특징짓는</p>

구성은 표현(또는 상징)이라고 불리며, 표현의 일반형식을 규정하는 것은 공통적(불변항)이지만, 그 밖의 표현은 가변항(명제변수)이며, 이것이 어떻게 바뀌는가는 한정된다.

예 : “X는 Y이다”는 명제에서, ‘X’와 ‘Y’는 가변항이며, “~은 ~이다”는 불변항이다. ‘X’에 ‘사과’를 대입했을 때, 가변항을 ‘사과’라고 한정했기 때문에 ‘사과’라는 공통점을 지닌 명제들을 지적하게 된다. 그러나 이 한정에 의해서 ‘사과’에 관해 말해진 것은 아니다.

즉 “명제란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표현들의 함수”인 것이다. 또한 명제는 논리적 공간에서의 위치를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위치 규정은, 즉 논리적인 모든 공간이 부여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 표현(기호, 상징)은 때로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 두 개의 상이한 대상을 향해 하나의 기호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각각의 기호가 상이하고 작용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각각의 기호의 의미에 역할을 부여하려고 하는 잘못된 위험이 존재한다. 기호가 상이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각각의 기호가 다른 기호로 전환되어도 좋다는 것이다. 기호란 그 자체는 아무 것도 표현하지 않지만, 그 명제가 사용된 방식에 의해서, 또 그 관련에서만 그 의미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예 : “빛나(이름)는 빛난다(형용사)”라고 했을 때, 각각의 “빛나”는 다른 기호에 의해 대체되어도 좋다. “빛나”는 기호로서 아무 것도 표현하지 않지만, 명제와의 관련(사용되는 방식)을 통해서 그 의미를 나타낸다.

기호 언어는 모두 이런 논리적 구문 규칙에 따라서 사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처럼 표현된 명제 기호가 사고인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이론’이란 이 장에서 보았듯이 “명제와 세계(사실)이 대응관계에 있다”는 생각이다.

질문 4. 유의미한 명제란 무엇인가? 요소 명제, 복합 명제, 항진 명제, 모순 명제 등에 주목하여 대답해 보시오.(4~5.557)	
원문 읽기	<p>“4. 사고는 뜻을 지닌 명제이다. 4.001 명제들의 총체가 언어이다. 4.023 현실은 명제에 의해서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고정되어야 한다. / 명제는 어떤 한 사태의 기술이다. <중략> 4.031 명제 속에서 상황은 말하자면 시험적으로 조립된다. ‘이 명제는 이리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대신에 우리는 ‘이 명제는 이리이러한 상황을 묘사한다’고 곧바로 말할 수 있다. 4.05 현실은 명제와 비교된다. 4.06 명제는 오직 현실의 그림임으로 해서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4.064 모든 명제 각각은 이미 어떤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다 ; 공정이 명제에</p>

	<p>뜻을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긍정이란 실은 바로 뜻의 긍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점은 부정 등에 관해서도 똑같이 해당된다.</p> <p>4.2 명제의 뜻은 사태들의 존립 및 비존립 가능성들과 명제와의 일치와 불일치이다.</p> <p>4.21 가장 단순한 명제 즉 요소 명제는 어떤 한 사태의 존립을 주장한다.</p> <p>4.211 요소 명제는 어떤 요소 명제와도 모순될 수 없다는 것이 요소 명제의 한 표징이다.</p> <p>4.22 요소 명제는 이름들로 이루어진다. 요소 명제는 이름들의 어떤 한 연관, 연쇄이다.</p> <p>4.221 명제들을 분석할 적에 우리가 직접적인 결합 관계에 놓여 있는 이름들로 이루어진 요소 명제들에 도달해야 된다는 점은 명백하다.</p> <p>4.25 요소 명제가 참이면, 사태는 존립한다 ; 요소 명제가 거짓이면, 사태는 존립하지 않는다.</p> <p>4.26 모든 참된 요소 명제들이 제시되면, 세계는 완전히 기술된다. 모든 요소 명제들이 제시됨과 아울러 그 중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가 제시되면, 그로써 세계는 완전히 기술된다.</p> <p>4.4 명제는 요소 명제들의 진리 가능성들과의 일치 및 불일치의 표현이다.</p> <p>4.46 진리 조건들의 가능한 집단들 중에는 극단적인 두 경우가 존재한다. 그 한 경우에 명제는 요소 명제들의 모든 진리 가능성들에 대해서 참이다. 우리는 그 진리 조건들이 동어반복적[항진적]이라고 말한다. 두 번째 경우에 명제는 모든 진리 가능성들에 대해서 거짓이다. 그 진리 조건들은 모순적이다. 첫 번째 경우에 우리는 그 명제를 동어 반복(항진적)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경우에 우리는 그 명제를 모순(명제)라고 말한다.</p> <p>4.461 명제는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여 주는데, 동어 반복(항진)과 모순은 자기들이 아무 것도 말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동어반복(항진)은 아무런 진리 조건도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동어반복(항진)은 무조건 참이기 때문이다 ; 그리고 모순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참이 아니다. 동어반복(항진)과 모순을 뜻을 잃은 것이다.</p> <p>4.4611 그러나 동어반복과 모순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p> <p>4.52 명제들은 모든 요소 명제들의 총체로부터 <중략> 따라 나오는 모든 것이다. <중략>”(59~86쪽)</p>
<p>답변</p>	<p>비트겐슈타인은 “명제 4”에서 명제의 의의에 대해 논한다. 그런데 상당히 까다롭지만 《논리철학논고》에 등장한 명제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p> <p>명제 — 요소 명제 — 유의미한 명제(총체는 논리공간이다) — 참된 명제(총체는 세계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 거짓 명제</p> <p style="text-align: center;">— 무의미한 명제</p>

- 복합 명제(←뜻을 지닌 요소 명제에서 나온다)
 - 유의미한 명제 & 아무 뜻도 없는 명제
 - 무의미한 명제 — 항진명제
 - 모순 명제

비트겐슈타인은 명제의 총체를 언어라고 말한다. 그리고 동시에 그 명제 속에서 뜻이 있는 것이 사고라고 말한다. 이것은 어떤 것일까? 무엇이 뜻이 있는 명제인 것일까?

우선 요소 명제와 복합 명제에 관해 설명해 보자. 요소 명제란 그 이상으로는 분해할 수 없는 명제이다. 예를 들어 “들뢰즈 선생님은 강사이다” 등을 거론할 수 있다. 한편으로 복합명제란 그러한 요소 명제들을 서로 묶은 명제를 가리킨다. 즉 “들뢰즈 선생님은 강사이며, 다른 한편으로 푸코 선생님이 강사이다”라는 종류의 명제이다. 이 명제는 “들뢰즈 선생님은 강사이다”라는 요소 명제와 “푸코 선생님은 강사이다”라는 두 개의 요소 명제로부터 성립되는 복합 명제인 것이다. 즉 복합 명제는 요소 명제를 묶은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요소 명제의 유의미성에 관해서 조사하는 것이 복합명제의 유의미성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복합 명제가 요소 명제의 집합인 이상, 논리 공간을 규정하는 힘을 가지는 것은 요소 명제이다. 그러므로 요소 명제의 유의미성을 아는 것에 의해 논리 공간의 한계, 즉 사고의 한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요소 명제의 유의미성에 대해 조사해 보자. 우선 유의미한 명제를 살펴보자. 예를 들면 다음의 문장은 어떤가? “KSC의 포스터는 붉다.” 이 명제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간단하다. 사실과 비교하면 되는 것이다. 사실을 조사해 보면 KSC의 포스터는 확실히 붉다. 그러므로 이 명제는 참된 명제이다. 그렇다면 만약 이 명제가 “KSC의 포스터는 검다”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물론 거짓 명제가 된다. 왜냐하면 사실과 비교하면 거짓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참된 명제(총체로서는 세계)와 거짓 명제는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유의미한 명제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요소 명제는 상황(사실 혹은 가능한 사실)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참이든 거짓이든 사실과 비교해서 진위를 판정할 수 있는 명제가 비트겐슈타인에게서의 유의미한 명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지 않는 듯한 명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비트겐슈타인은 그것을 뜻이 없는 명제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예를 통해 살펴 보자. “들뢰즈씨는 2로 나뉘어 떨어진다”, 혹은 “원은 무겁다”, “튀립뽀기”. 이것들은 모두 언어로부터 성립되지만 무엇인가 이상하다. “튀립뽀기”는 원래 이름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원은 무겁다”는 품사의 범주에서 생각하면 언어의 규칙을 무시하고 있다. “들뢰즈씨는 2로 나뉘어 떨어진다”는 의미상 이상하다. 이와 같은 명제를 비트겐슈타인은 명제로서의 뜻을 수반하지 않은 명제, 즉 “뜻이 없는 명제”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것들은 논리 공간의 바깥, 즉 사고불가능한 세계로 쫓겨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항진명제(동어반복명제)와 모순명제라는 명제에 관해 조금 설명해

보겠다. 항진명제란 현실이 어떻든 간에 항상 참인 명제이며, 반대로 모순명제는 현실이 어떻든 간에 항상 거짓인 명제이다. 항진명제의 예를 들면 “p는 p이다”이며, 모순명제는 “p는 p가 아니라는 것과 같다”는 것을 거론할 수 있다. 앞의 예를 들자면, p에 “김씨는 남자이다”라는 명제를 대입해 보자. 그렇다면 “(김씨는 남자이다)는 (김씨는 남자이다)이다”가 된다.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명제의 경우 p에 어떤 요소 명제를 집어넣더라도 반드시 그 명제는 참이 된다. 반대로 모순 명제에 집어넣으면, “(김씨는 남자이다)는 (김씨는 여자이다)와 같다”가 되어, 의미상으로는 “(김씨는 남자이다)은 (김씨는 여자이다)와 같다”는 것이 되어 버린다. 이것은 p에 어떤 명제를 집어넣어도 똑같은 거짓 대답이 나온다. 이것을 모순 명제라고 부른다. 이 두 개의 명제는 이름과 논리어(‘한편’이나 ‘또는’)로부터 성립되고 있어 논리형식을 일탈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전혀 수반하지 않았다. 항진 명제와 현실을 대조해 보려고 해도, 대조해 보지 않으려고 해도 반드시 참일 수밖에 없다. 모순명제는 그 반대로 반드시 거짓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는 항진명제와 모순명제를 ‘무의미한 명제’라고 부르는 것이다.

질문 5. 비트겐슈타인이 연 새로운 철학관에 대해 설명해 보자.(4.0031, 4.1~4.128)

원문 읽기	<p>“4.0031 모든 철학은 ‘언어비판’이다. <중략> 4.01 명제는 현실의 그림이다. 명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 현실의 모델이다. 4.1 명제들은 사태의 존립과 비존립을 묘사한다.”(60~61쪽)</p>
답변	<p>이것은 《논리·철학 논고》의 그 유명한 그림이론에 대한 설명 부분이다. 그림이론이란 “말의 의미는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이다”라는 사고방식이다. 정말이지 이 의미를 고려하면 “명제는 현실의 그림이다”는 말의 의미를 볼 수 있게 된다. 확실히 우리는 시각을 통해 거기에 비치는 물질을 상을 인식한다. 더욱이 그 물질에는 다른 물질과 식별하기 위해서 각각 고유한 이름(말)으로 단락지어져 있다. 예를 들면 “하늘은 푸르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하자. 눈에 비치는 것은 망막에 떠오른 상(하늘)이다. 그 상을 “하늘”이라는 언어의 사슬로 묶어서 대상의 인식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다. 본문 속에서 구체적인 예로 거론되고 있는 음표들도 마찬가지이다. 음악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청각에 의해 파악할 수 있는 ‘리듬’(여기에서는 리듬이라는 말을 사용하자)을 #이나 b 라는 기호로 묶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리듬’을 눈에 보이는 인식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이나 b 도, ‘샵’, ‘플랫’이라는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인식 대상으로 삼는다. 그밖에도 영화 《매트릭스》는 언어가 세계의 그림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쉽게 해 준다. ‘매트릭스’의 세계는 컴퓨터 화면에 비치는 기호나 문자, 숫자라는 이른바 컴퓨터 언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퍼레이터는 그것을 보고 매트릭스 내의 세계를 그림으로 변환해 보고 있는 것이다. 즉 오퍼레이터에게 있어서 언어는 그대로 그림이 되어 보여지고 있는 것이</p>

	다.
원문 읽기	<p>“4.022 명제는 그 뜻을 보여준다. 명제는 만일 그것이 참이라면 사정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명제는 사정이 그러하다고 말한다. 4.06 명제는 오직 현실의 그림임으로 해서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63, 66쪽)</p>
답변	<p>위에서 말한 것으로부터 “명제는 만일 그것이 참이라면 사정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명제는 사정이 그러하다고 말한다.”를 이해할 수 있다. 즉 언어를 통해 사태를 인식할 때, 우리는 사태의 상태[사정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과는 붉다”는 말을 보면, 우리들의 뇌리에는 영상과 더불어 그 사과에 대한 정보가 흘러간다. “사과는 붉다”, 즉 그 사과는 “익었다”, “제철이다”, “(어쩌면) 맛있겠다” 등의 사정을 “사과는 붉다”로부터 이해할 수 있다.</p>
원문 읽기	<p>“4.027 명제가 우리에게 새로운 뜻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은 명제의 본질 속에 놓여 있다. 4.03 명제는 낱은 표현들을 가지고 새로운 뜻을 전달해야 한다. 명제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상황을 전달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본질적으로 상황과 연관되지 않으면 안 된다.”(64쪽)</p>
답변	<p>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고 해도 명제는 항상 낱은 표현인 채로 있다. 확실히 새로운 것에는 새로운 고유명사를 부여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인 명제는 예로부터 물려받은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명제는 항상 낱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p>
원문 읽기	<p>“4.04 명제에서는 그것이 묘사하는 상황에서 구별될 수 있는 바로 그만큼이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중략>”(65쪽)</p>
답변	<p>“사과는 붉지만 자르면 희고 먹으면 달다.” 이것은 “사과는/붉지만/, 자르면/희고/, 먹으면/달다.”처럼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명제가 보여준 사태의 수와 문장을 나눌 수는 반드시 같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p>
원문 읽기	<p>“4.0621 <중략> 명제 ‘p’와 ‘~p’는 대립된 뜻을 가지지만, 그것들에는 하나의 동일한 현실이 대응한다. 4.0623 진리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 : 흰 종이 위의 검은 얼룩 점; 그 얼룩 점의 형태는 그 평면 위의 모든 점 각각이 흰가 검은가를 진술함으로써 기술될 수 있다. 어떤 한 점이 검다는 사실은 긍정적 사실에, 어떤 한 점이 희다(검지 않다)는 사실은 부정적 사실에 대응한다. 내가 그 평면 위의 어떤 한 점(프레젠택적인 진리치)을 가리킨다면, 이는 판정받기 위해 세워진 가정에 해당된다, 등등. 그러나 어떤 한 점이 검다거나 희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나는 우선 언제</p>

	<p>우리가 어떤 한 점을 검다고 부르며, 언제 우리가 어떤 한 점을 희다고 부르는지 알아야 한다. 즉 ‘p’는 참이다(또는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나는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p’를 참이라고 부르는지 확정해 놓아야 하며, 이로써 나는 그 명제의 뜻을 확정한다.</p> <p>그런데 우리의 비유는 이 점에서는 적절치 않다. 즉 우리는 희다는 게 무엇이며 검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서도 종이 위의 한 점을 가리킬 수 있다. 그러나 뜻이 없는 명제에는 아무 것도 대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령 ‘참’ 또는 ‘거짓’이라 불리는 속성을 지니는 어떤 것(진리치)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이다. 명제의 동사는 — 프레게가 믿은 것처럼 — ‘참이다’나 ‘거짓이다’가 아니다. 오히려, ‘참인’ 것은 이미 동사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67~68쪽)</p>
답변	<p>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자. 여기에 한 장의 종이가 있다고 하자. 색은 흰색과 검은색으로 구별되어 있고, 지면을 불규칙하게 차지하고 있지만, 비율은 대략 1:1이다. 그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줄 경우, 어떤 사람은 “흰 종이에 검은 것이 무수하게 있다”고 말하며, 또한 어떤 사람은 “검은 종이에 흰 것이 무수하게 있다”고 말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양자의 뜻은 정반대이지만 현실에서는 1장의 종이이므로 동일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p>
원문 읽기	<p>“4.112 철학의 목적은 사고의 논리적 명료화이다. 철학은 이설(理說)이 아니라 활동이다. 철학적 작업은 본질적으로 주해들로 이루어진다. 철학의 결과는 ‘철학적 명제들’이 아니라, 명제들이 명료해짐이다. 철학은 말하자면 흐리고 몽롱한 사고들을 명료하게 만들고 명확하게 한계를 그어야 한다.</p> <p>4.114 철학은 생각될 수 있는 것에 한계를 그음과 동시에, 생각될 수 없는 것에 한계를 그어야 할 것이다. 철학은 안으로부터, 생각될 수 있는 것을 통하여, 생각될 수 없는 것을 한계지어야 할 것이다.</p> <p>4.115 철학은 말할 수 있는 것을 명료하게 묘사함으로써, 말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p> <p>4.116 좌우간 생각될 수 있는 모든 것은 명료하게 생각될 수 있다. 언표될 수 있는 모든 것은 명료하게 언표될 수 있다.</p> <p>4.121 명제는 논리적 형식을 묘사할 수 없다. 논리적 형식은 명제에서 반영된다. 언어에서 반영되는 것을 언어는 묘사할 수 없다. 언어에서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명제는 현실의 논리적 형식을 보여준다. 명제는 현실의 논리적 형식을 내보인다.”(69~71쪽)</p>
답변	<p>“철학의 목적은 사고의 논리적 명료화이다. 철학은 이설(理說)이 아니라 활동이다.”는 철학이 정해진 일종의 사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어를 수반한 지적 활동이라</p>

	<p>는 의미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철학책은 흐리고 몽롱한 사고들을 명료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언어에서 반영되는 것을 언어는 묘사할 수 없다”, “언어에서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것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우리들의 사고를 넘어서고 있으므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림 이론식으로 생각할 경우, 우리는 눈이 비친 그림을 언어로 묶어 인식한다. 세상의 그림에는 모두 이름이 붙여 있고, 모두 명제로 성립한다. 바꿔 말하면 언어를 통해서만 그림은 존재하며, 언어가 없는 경우에는 그림도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에 관해서 사고할 수 없다.</p>
<p>원문 읽기</p>	<p>“4.122 어떤 뜻에서 우리는 대상들과 사태들의 형식적 속성들 내지 사실들의 구조적 속성들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뜻에서, 형식적 관계들 및 구조적 관계들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중략></p> <p>4.1221 어떤 사실의 내적 속성을 우리는 그 사실의 모습이라고도 보를 수 있다. (가령 우리가 얼굴의 모습에 관하여 말하는 것과 같은 뜻에서.)</p> <p>4.1251 이제 여기서 ‘모든 관계들은 내적인가 또는 외적인가’ 하는 논쟁은 사라진다.”(71~73쪽)</p>
<p>답변</p>	<p>철학자가 자주 내적 관계와 고유의, 즉 외적인 관계를 혼동하는 것을 저자는 명제를 이용해 그렇게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사람 모습이나 색 등이 그러하다. ‘사람 모습’이라는 언어로부터 특정한 인물의 얼굴을 나타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색’도 농도를 ‘파랑’이라는 한마디로는 나타낼 수 없다. 즉 이런 말에는 내부에 그러한 특질을 미리 포함하고 있으며, 외적 요인 때문이 아닌 것이다. 상징도 마찬가지이다.</p>
<p>원문 읽기</p>	<p>“4.128 논리적 형식들은 수를 결여하고 있다.</p> <p>그렇기 때문에 논리학에는 특출한 수들이 존재하지 않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 일원론이나 이원론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77쪽)</p>
<p>답변</p>	<p>논리적 형식에는 수가 없다는 것은 원래 특출한 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계층이라는 것도 없고, 특수한 형식은 자의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고하는 것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논리 형식을 알지 못한 채 자연과 논리적 형식에 맞는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에, 다른 곳에서 다루보자.</p>
<p>원문 읽기</p>	<p>“4.0031 모든 철학은 ‘언어비판’이다. <하략>”(60쪽)</p>
<p>답변</p>	<p>어쨌든 이처럼 비트겐슈타인이 열어젖힌 철학이란 그림 이론에 의한 것이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림이며 결국 언어라고 간주한다면, 우리가 행하는 사고는 모두 언어에 묶여 있다. 그러므로 사태나 사실에 관해서 의심</p>

을 품는다는 것은 모두 언어를 비판하는 것으로 된다는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이 생각한 철학이란 모름지기 “언어비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질문 6. “나의 언어의 한계들은 나의 세계의 한계들을 의미한다”(5.6)는 어떤 의미인가? “유아론”에 주목하여 대답해 보시오.(5.6~5.641)

<p>원문 읽기</p>	<p>“5.6 나의 언어의 한계들은 나의 세계의 한계들을 의미한다. 5.61 논리는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다; 세계의 한계들은 또한 논리의 한계들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논리학에서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즉 이것과 이것은 세계 내에 존재하고, 저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외견상 그것은 우리가 어떤 가능성들을 배제한다고 전제하게 될 터인데, 이는 사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논리는 세계의 한계들을 넘어가야만 할 테니까; 요컨대 만일 논리가 이 한계들을 다른 쪽으로부터도 또한 고찰할 수 있다면 말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도 없다. 5.62 이러한 고찰은 유아론이 어느 정도까지 진리인가를 결정해 줄 열쇠를 준다. 요컨대 유아론이 뜻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 다만 그것은 말해질 수는 없고 스스로 드러날 뿐이다. 세계가 나의 세계라는 것은, 언어(내가 유일하게 이해하는 그 언어)의 한계들은 나의 세계의 한계들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5.63 나는 나의 세계이다.(소우주)”(117~118쪽)</p>
<p>답변</p>	<p>“나의 언어의 한계들은 나의 세계의 한계들을 의미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유아론이다. 이것은 즉 내가 이해하는 언어의 한계가 나의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는 것이며, 나의 세계란 내가 경험한 사실에 의거해서 얻을 수 있던 대상으로부터 구조된 논리적 공간이다. “들뢰즈 선생님은 하늘을 난다”는 명제에 관해서 우리들은 들뢰즈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있으며 들뢰즈 선생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즉 그것은 들뢰즈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학생에게는 가능적 사실이며 논리적 공간 안에 있다. 그러나 들뢰즈 선생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명제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여기에서 예로 들었던 “들뢰즈 선생님”, “하늘”, “날다”라는 대상 각각은 경험에 의한 사실의 인식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나의 언어란 즉 내가 경험에 의해서 얻은 대상으로부터 완성된 언어이다. 사람들의 경험이 각각 다르고 대상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논리적 공간은 다른 것이 된다. 세계와 세계의 한계란 동의어가 아니다. 세계란 논리적 공간 속에서 현실화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 첫 번째 말이 의미하는 것은 세계의 한계를 정하는 대상 영역과, 나의 세계의 한계를 정하는 대상 영역이 같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유아론의</p>

본질이다. 그리고 “A가 없다”고 하는 것은 논리의 가능성을 세계의 바깥에 두는 것이며, 논리가 세계를 초월하게 된다. 존재에 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참이다 거짓이다라는 가능성으로 가득 찬 논리적 공간 속에서 존재라는 개념은 들어설 수 없으며, 즉 대상 자체에 관해서 말할 수 없으며, 그것은 나타날 뿐이라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세계를 사고 가능한 것, 말할 수 있는 것에 국한했다. 우리가 사고할 수 없는 것은 우리들이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유아론을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 유아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지만, 그것은 말해지지 않고 그저 나타날 뿐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유아론자인 비트겐슈타인)가 의미하는 나라는 말을 타인이 이해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역설이 존재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질문 7.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논리, 세계, 윤리, 삶과 죽음, 철학이란 무엇인가?(6~7)	
원문 읽기	“6. 진리 함수의 일반적 형식은 $[\bar{p}, \bar{\xi}, N(\bar{\xi})]$ 이다. 이것이 명제의 일반적 형식이다.”(120쪽)
답변	비트겐슈타인이 《논리철학논고》를 쓴 의도는 무엇일까? 이에 관해서는 우선 그의 논리학적 관점에 주목해 보자. 여기에서 \bar{p} 은 모든 요소 명제의 집합이며, $\bar{\xi}$ 는 임의의 명제의 집합이고(5.501 참조), $N(\bar{\xi})$ 은 $\bar{\xi}$ 를 구성하는 모든 명제의 부정이다.(5.502 참조)
원문 읽기	“5.501 나는 명제들을 향으로 가지는 괄호 표현을 — 그 괄호 속에 든 항들의 차례가 아무래도 상관없을 때 — ‘ $\bar{\xi}$ ’라는 형식의 기호에 의해서 나타낸다. ‘ $\bar{\xi}$ ’는 괄호 표현의 항들을 그 값으로 가지는 하나의 변항이다 ; 그리고 그 변항 위의 선은 그 변항이 괄호 속에 들어 있는 그 변항의 값들 전부를 대표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ξ 가 가령 P, Q, R이라는 3개의 값을 가진다면, $(\bar{\xi})=(P, Q, R)$ 이다.) 그 변항의 값들은 규정된다. 그 규정은 그 변항이 대표하는 명제들을 기술하는 것이다.”(104쪽)
답변	이 식은 무작위로 몇 가지 요소 명제를 선택하여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게다가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었던 명제 집합 중에서 약간의 것을 처음의 요소 명제 중의 임의의 것과 함께 선택하여 이하와 같은 작업을 더하여 무한히 계속해 가는 것에 의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즉 그것은 ‘회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아래를 참조.)
원문 읽기	“6.1 논리학의 명제들은 동어반복들[항진명제들]이다. 6.113 우리가 그 상징만으로도 그것들이 참임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논리적 명제들의 특수한 징표이다. 그리고 이 사실 속에 논리 철학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따라서 비-논리적 명제들의 참 또는 거짓이 명제만으로는 인식될 수 없다는 점도 역시 중요한 사실들 중의 하나이다.”(122쪽)
답변	여기에서 “명제만으로는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은 경험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원문 읽기	<p>“6.12 논리학의 명제들이 동어반복들[항진명제들]이라는 점은 언어의, 그리고 세계의, 형식적 — 논리적 — 속성들을 보여준다.</p> <p>6.1222 <중략> 논리학의 명제는 가능한 어떤 경험에 의해서도 반박될 수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확증될 수도 없어야 한다.</p> <p>6.124 <중략> 논리학에서는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기호들의 도움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아니라, 논리학에서는 자연 필연적인 기호들의 본성 스스로가 진술을 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 어떤 기호 언어의 논리적 구문론을 알고 있다면, 논리학의 모든 명제들은 이미 주어져 있다.</p> <p>6.13 논리학은 이설(理說)이 아니라, 세계의 거울상이다. 논리학은 선형적이다.</p> <p>6.3 논리의 탐구는 모든 법칙성의 탐구이다. 그리고 논리 밖에서는 모든 것이 우연이다.</p> <p>6.33 우리는 어떤 하나의 보존 법칙을 선천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논리적 형식의 가능성을 선천적으로 아는 것이다.</p> <p>5.1362 의지의 자유는 미래의 행위들이 지금 알려질 수 없다는 점에 놓여 있다. 인과성이 논리적 추론의 필연성과 같이 내부적 필연성일 경우에만 우리는 미래의 행위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앞과 알려진 것과의 연관은 논리적 필연성의 연관이다.”(122~133, 90~91쪽)</p>
답변	<p>지금까지 비트겐슈타인이 ‘논리학’에 관해 기술한 것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된 명제들을 주석을 달면서 발췌해 보았다. 여기에서는 우선 주석에 따르면 명제의 반복성이 나타난다. 이것은 $\bar{\xi}$, 즉 임의의 명제 집합에 대해서 $N(\bar{\xi})=\bar{\xi}$를 구성하는 모든 명제의 부정을 무한하게 반복한 결과인데, 이것은 요소 명제의 수가 무한한 경우에는 난점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요소 명제는 개인의 경험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그 유한성은 인정될 것이다. 또 반복성도 확실하게 나타나지만, 이것은 언어의 한계와, 결국은 형식으로서의 논리만이 참된 것으로 남는다는 것을 보다 강하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의 구조상 책의 맨 앞에 위치한 명제의 하부 구조로서 다음의 명제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예가 명제 6을 해명하는 실마리가 된다. 인용을 정리하면 논리는 세계의 형식이며, 인간적 사고를 표현하는 교설doctrine이 아니다. 또 논리에는 필연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아프리오리하게 인간의 구조 속에 존재하며, 임의의 경험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참된 것이다. 이어서 세계에 대한 서술에 주목해 보자.</p>
원문 읽기	“6.3611 우리는 어떠한 과정도 ‘시간의 경과’ — 이런 것은 없다 — 와 비교할 수 없고, 단지 다른 어떤 하나의 과정과 (가령 측시기測時器의 작동과) 비교할 수 있을

원문 읽기	<p>“6.41 세계의 뜻은 세계 밖에 놓여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이며, 모든 것은 일어나는 그대로 일어난다; 세계 속에는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 그리고 만일 가치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아무 가치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p> <p>6.42 그렇기 때문에 윤리학의 명제들도 역시 존재할 수 없다.</p> <p>6.421 윤리학이 언표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윤리학은 선험적이다. (윤리학과 미학은 하나이다.)</p> <p>6.422 ‘당신은 ~해야 한다’라는 형식의 윤리법칙이 세워졌을 때 떠오르는 최초의 생각은 ‘그런데 만일 내가 그렇지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윤리학이 통상적인 뜻에서의 상별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행위의 결과들에 관한 이러한 물음은 중요하지 않아야 한다. — 최소한 이 결과들이 사건들이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문제 제기에는 무엇인가 올바른 것이 있음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일종의 윤리적 상별이 존재하기는 해야 하지만, 이 상별은 행위 자체 속에 놓여 있어야 한다.”(139~140쪽)</p>
답변	<p>“이 책의 핵심은 윤리적인 것입니다. 지금은 들어 있지 않지만 내가 한때 서문에 포함시키려 했던 문장 하나를 지금 써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마도 그 책의 열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려고 했던 문장은 이렇습니다. <내 책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쓰여진 부분과 내가 쓰지 않은 모든 것들, 그리고 이 둘째 부분이 중요한 것이다. 내 책은 윤리적인 것의 영역에 대해 말하지만 내부로부터 한계가 지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러한 한계를 긋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 분야에서 나는 그것에 대하여 침묵을 지킴으로써 모든 것을 확고하게 제자리에 놓는 데 성공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비트겐슈타인이 《논고》의 출판을 위해 폰 피커(von Ficker)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또 1916년 7월 24일자 일기에는 “윤리학은 세계에 관해서 무엇인가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논리학처럼 세계 [그 자체]의 조건이어야만 한다.”고 쓴다.</p> <p>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책이 윤리적 의도를 가지고 쓰여졌음을 볼 수 있다. 사실 그에게 있어서 윤리적인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윤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의 바깥에 놓여 있는 것이고, 세계의 바깥에 놓여 있는 것이기에 결국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만 한다.</p> <p>이런 점에서 볼 때 6.422의 “당신은 ~해야 한다”는 형태의 윤리법칙은 칸트가 말한 ‘정언명령’일 것이다. 그리고 1916년 7월 8일자 일기에는 “나는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이게 전부이다. 선이라거나 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이렇게 보면 비트겐슈타인이 보기에 세계 안에 윤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프리오리하게 존재하는 세계의 조건이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세계 속에 존재하는 윤리는 독자론적인 자기의 세계에 있어서의 윤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윤리에 대해 말할 수 있지 않다.</p>

	<p>여기에서도 ‘세계’에 대한 그의 생각이 현저하게 반영된 것처럼 보인다.</p>
<p>원문 읽기</p>	<p>“6.431 비록 죽으면 세계는 바뀌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5.621 세계와 삶(生)은 하나이다. 6.4311 죽음은 삶의 사건이 아니다. 죽음은 체험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영원이란 것을 무한한 시간 지속이 아니라 무시간성으로 이해한다면 현재 속에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시야가 한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끝이 없다. 6.4312 <중략> 공간과 시간 속에 있는 삶의 수수께끼에 대한 해결은 공간과 시간 밖에 놓여 있다. (정말 해결되어야 할 것은 자연과학의 문제들이 아니다.)”(141, 118쪽)</p>
<p>답변</p>	<p>이것은 비트겐슈타인이 삶과 죽음에 대해 던진 질문, 존재에 대해 물은 질문이라고 표현해도 지장 없을 것이다. 죽음은 존재의 정지를 의미한다. 세계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정지인 것이다. 그러나 표현을 바꾸면 그것은 자기 세계의 정지를 똑같이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무시간성의 가정을 거론하여 삶의 항구적 계속성을 그는 말한다. 여기에는 영원한 삶에의 동경과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문제는 세계의 바깥에 위치하므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p> <p>요컨대 비트겐슈타인이 영원성을 무한히 계속되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무시간성timelessness으로 이해하고 있음도 염두에 두자. 이러한 영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즉 현재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미 시간성을 초월한 것이며 이런 지점에서 삶 또는 죽음은 더 이상 세계의 일회적이고 우연적인 사건이나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p>
<p>원문 읽기</p>	<p>“7.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는 침묵하지 않으면 안 된다.”(143쪽)</p>
<p>답변</p>	<p>정리하면 비트겐슈타인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자기를 ‘죽음’으로부터 구제하는 것,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말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키에르케고르와 문제의식이 비슷했을지도 모른다. 세계는 나이며, 삶이다. 그러므로 세계는 나의 의지대로이다. 이러한 독아론적 세계 속에서는 윤리나 신은 초월적일 것이다. (내게 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세계뿐이다.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것은, “현재의 삶을 행복하게 살라”는 메시지였는지도 모른다.</p>